

# 『訓民正音』의 聲調\*

김 성 규\*\*

## I. 도입

일상 문자 생활에서 운소를 표기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훈민정음의 창제자는 이러한 이례적인 표기를 고안하여 이용함으로써 15세기의 언어음에 대한 모든 요소를 있는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당시에 平上去入으로 기술된 운소의 성격이 어떠했든 간에 『訓民正音』에서는 전통적인 중국 韻學의 四聲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고유어와 한국한자음의 운소를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sup>1)</sup>

‘훈민정음’ 창제자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聲點<sup>2)</sup> 표기되어 있는 15세기와 16세기는 한국어의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운율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

\*이 연구는 한글박물관의 ‘훈민정음 연구의 성과와 전망(2016년)’ 사업의 결과물임.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聲點은 漢語의 성조 표기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성조 단위가 국어와 漢語에서 동일한 높낮이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김완진, 1973/1977:9-16 참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III장의 ‘각주 11)’ 참조.

2) 일반적으로는 『訓蒙字會』(범례)에 나온 ‘傍點’이라는 술어가 사용되고 있다.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少爲準(물읏 글字·즈음음·의 노·푼·며 ㄴ가·오·미 :다 字·즈·겨·띄 點·덤·이 이시·며 :엿·스·며 하·며 :저·금·으·로·보·라·를 사·를 거·시·니). 이기문(1972/1977:141)에서는 『훈민정음(해례본)』〈例義〉의 ‘左加一點’과 〈合字解〉訣의 ‘音因左點四聲分’을 들어 ‘左點’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방점’이라는 술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聲點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성조에 대해 ‘聲’이라고 명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 쉬운 상태가 되었다. 현대국어의 경우 음성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운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자언어를 통해 운소를 전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15세기와 16세기에 한정되는 것이다.

15세기와 16세기의 문헌에 보이는 성점은 말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런데 근대적 학문이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인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중세국어 문헌어의 후대형이라고 여겨지는 현대국어의 중앙어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변별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의 논의에서는 성점이 말의 길이를 표기한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주시경 1908:17-18 참조). 성점이 말의 높낮이를 표기하려는 수단이라는 사실이 인식된 것은 고노(河野六郎)(1945:130-131, 1951)에 이르러서였다.

여기서는 ‘훈민정음의 성조’라는 논제 아래 다음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 『훈민정음』 자체에 보이는 平聲, 上聲, 去聲, 入聲에 대한 기술을 음미할 것이다. 그리고 성점에 대한 해석, 즉 성점이 말의 높낮이를 나타낸다는 인식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피고 해당 운소의 언어학적인 해석들을 제시할 것이다. 이번 논의는 ‘훈민정음의 성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기저 성조라든지 성조의 변동 현상 등에 대한 논의는 가급적 제외하였다.

## II. 『訓民正音(解例本)』 영인본의 聲點

『훈민정음(해례본)』의 대표적인 영인본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194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영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57년에 ‘통문관’에서 영인한 것이다.<sup>3)</sup> 두 영인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조선어학회본’에서는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였지만, ‘통문관본’에서는 원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조선어학회본’의 경우는 안병희(1997)에

3) ‘조선어학회 영인본’은 ‘조선어학회본’으로, ‘통문관 영인본’은 ‘통문관본’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서 지적하고 있듯이 “圈聲과 句讀點 및 傍點이 삭제”되거나, “紙背의 墨書와 파손된 부분이 영인 과정의 손질로 방점과 권성으로 된 일” 등이 나타난다.

안병희(1997)에서는 ‘조선어학회본’의 문제를 19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제시하기로 한다.<sup>4)</sup> 제시는 안병희(1997)의 번호와는 달리 ‘구두점, 권성점, 성점, 기타’의 순서로 하였다.

다음의 <그림 1>~<그림 6>은 구두점이 삭제된 예이다. <그림 1>의 경우는 우측 하단의 ‘淸’ 다음에 句點이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파손된 원전에서도 볼 수 없으므로 영인 과정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림 2>는 ‘쾌’ 뒤에서 구점이 삭제되었고, <그림 3>에서는 ‘去’의 뒤에서, <그림 4>에서는 ‘對’의 뒤, <그림 5>에서는 ‘之’의 뒤, <그림 6>에서는 ‘人’의 뒤에서 각각 구점이 삭제되었다.

다음으로는 권성 표기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기로 한다. 한자음은 성조가 바뀌면서 본래의 뜻 이외의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권성점<sup>5)</sup>을 찍어서 교감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입성인 ‘復(복)’이 ‘다시’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거성인 ‘부’로 발음되는데, ‘부’의 경우는 ‘復’의 오른쪽 위에 권성점을 찍는다. 권성점이 왼쪽 아래에 있으면 평성으로 발음되는 한자음에 해당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고, 왼쪽 위에 있으면 상성, 오른쪽 위에 있으면 거성, 오른쪽 아래에 있으면 입성으로 해석해야 한다.<sup>5)</sup>

우선 권성점이 삭제된 예부터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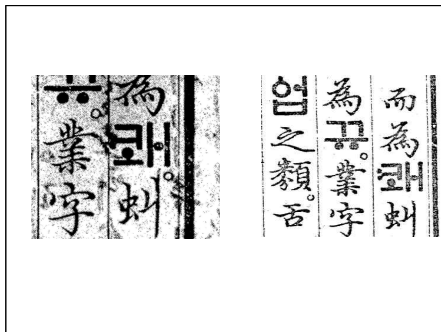
<그림 7>에서는 ‘夫’의 좌하단에서 평성을 나타내는 권성점이 삭제되었으며, <그림 8>에서는 ‘冠’의 우상단에서 거성을 나타내는 권성점이 삭제되면

4) 그림의 왼쪽은 ‘통문관본’이고 오른쪽은 ‘조선어학회본’이며, 표의 제목에 ‘안1’처럼 표기한 것은 안병희(1997)의 항목 번호이다.

5) 안병희(1986)의 破音字에 대한 논의 참조. 『훈민정음(해례본)』의 권성에 대해서는 정연찬(1970) 참조. 최세진의 『훈몽자회』(범례)에서는 파음자에 대해 “字·조·돌·히 본·딛소·릭 두·고 다른·뜯 다른 소·릭·로 쓰·면 그 달·이·쓰·는 소리·로 그·좃귀·에 돌임·흐·느니 行(널) 行 평평聲성 本·本音음) 行(저제 항 평평聲성) 行(헝덕:헝 去·거聲성)”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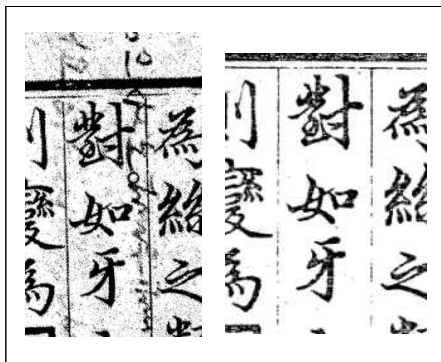
〈그림 1〉 제자해 3b-안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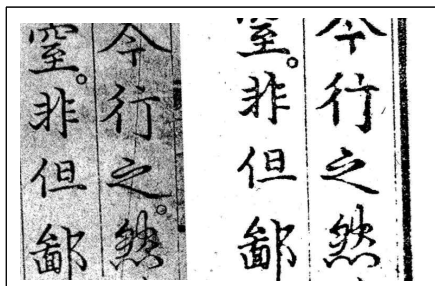
〈그림 2〉 초성해 15a-안6



〈그림 3〉 종성해 18a-안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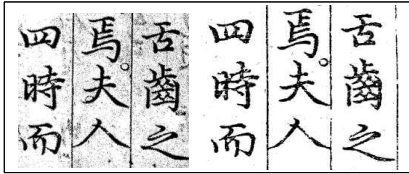
〈그림 4〉 종성해 18b-안9



〈그림 5〉 해례본 서27b-안17



〈그림 6〉 해례본 서28b-안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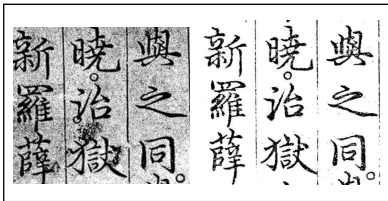
〈그림 7〉 제자해 2a-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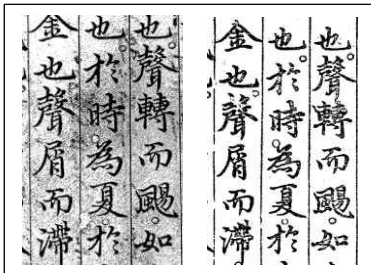
〈그림 8〉 제자해 6b-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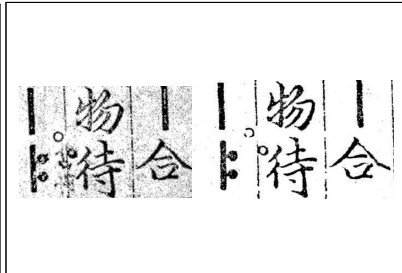
〈그림 9〉 합자해 20b-안10



〈그림 10〉 해례본서 27a-안16



〈그림 11〉 제자해 2b-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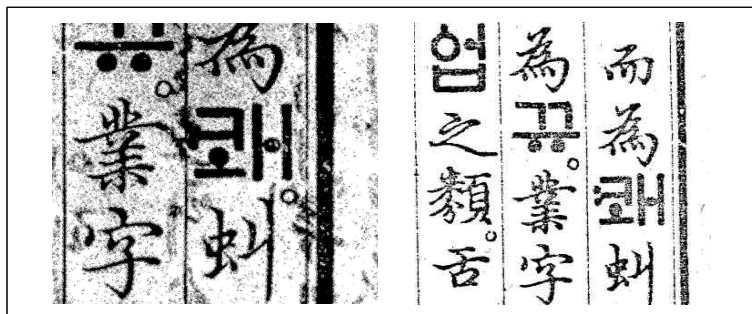


〈그림 12〉 합자해 5b-안4

서 진한 획으로 바뀌었다. 〈그림 9〉에서는 ‘縱’의 좌하단에서 평성을 나타내던 권성점이 삭제되었고, 〈그림 10〉에서는 ‘治’의 좌하단에서 평성을 나타내던 권성점이 진한 획으로 바뀌었다.

〈그림 11〉과 〈그림 12〉는 원래는 없던 권성점이 추가된 예이다. 〈그림 11〉은 ‘爲’의 왼쪽 위에 난 구멍 부분을 권성으로 보고 손질한 것이며, 〈그림 12〉는 紙背 글씨가 비친 것을 ‘待’의 왼쪽 위에 권성으로 잘못 기입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성점에 잘못이 있는 예를 보기로 한다.



〈그림 13〉 초성해 15a-안6

〈그림 13〉의 ‘쾌’는 ‘통문관본’의 경우 지배의 글씨로 인해 성점을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조선어학회본’에서는 해당 부분을 상성으로 처리하여 점을 두 개 찍어 놓았다. 그리고 刻字工 吳玉鑣 씨가 1979년에 만든 복각본은<sup>6)</sup> 해당 부분의 성점을 거성으로 복원하였다. 실제로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快’가 ‘·캥’로 되어 있어서<sup>7)</sup>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안병희 1997), 『동국정운』에도 ‘·캥’로 되어 있다. 안병희(1997)에서는 이 자리에는 원래 성점이 찍혀 있지 않았으리라고 추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입성인 ‘업(業)’과 ‘즉(卽)’도 원래는 점이 하나 찍혀야 하지만 『훈민정음(해례본)』에는 성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8)</sup> 이는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처음부터 한자음에 성조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6) 안병희(1997)에 의하면 이 책판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수장되어 있다.

7) 『훈민정음(해례본)』과 동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훈민정음(언해본)』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快’에 거성점이 찍혀 있다. (ㄱ·는 牙양音·이·니 如聲快·캥·字·중 初總發·별聲·히·니·라 / ㅋ·는 :업·쏘·리·니 快·캥·字·중·처·섬·피·아·나는 소·리·ㄱ·트·니·라(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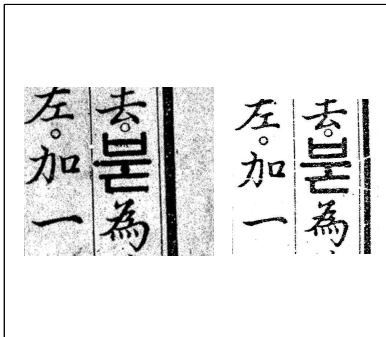
8) 『훈민정음(언해본)』에는 다음에서 보듯이 ‘業’과 ‘卽’에 대해 거성점을 찍었다. 그리고 ‘驚’ 역시 언해본에는 ‘·별’로 표기되어 거성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훈민정음(해례본)』에는 거성점 없이 ‘·별’으로 적혀 있다. ㅅ·는 牙양音·이·니 如聲業·업·字·중 初總發·별聲·히·니·라(ㅅ·는 :업·쏘·리·니 業·업·字·중·처·섬·피·아·나는 소·리·ㄱ·트·니·라(4b)) ㅅ·는 齒·청音·이·니 如聲卽·즉·字·중 初總發·별聲·히·니(ㅅ·는 :니·쏘·리·니 卽·즉·字·중·처·섬·피·아·나는 소·리·ㄱ·트·니(6b-7a))



〈그림 14〉 종성해 18a-안8



〈그림 15〉 영의갓



〈그림 16〉 합자해 22a-안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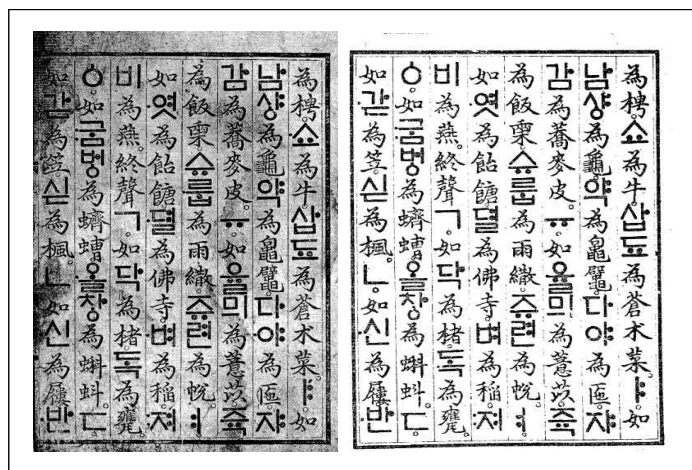
〈그림 17〉 용자례 25a-안13

견해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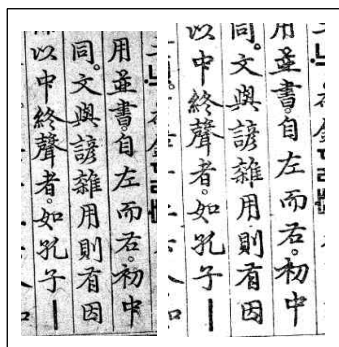
〈그림 14〉의 ‘영의갓’은 ‘조선어학회본’에서 고유어의 성조 표시가 잘못된 예이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통문관본’에는 ‘영의갓’의 ‘의’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紙背의 글씨가 비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6〉을 보면 ‘통문관본’에는 ‘분’의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조선어학회본’에서는 모음자의 왼쪽 획을 길게 긋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17〉의 ‘·그래’와 (안15)의 ‘·쇼, 다·야, 슈·롭, ·덜, ·벼, ·을

9) 이 문제에 대해서는 III장 3절의 〈初聲解〉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18〉 용자례 26a-안15



〈그림 19〉 합자해 21b-안11



〈그림 20〉 용자례 25b-안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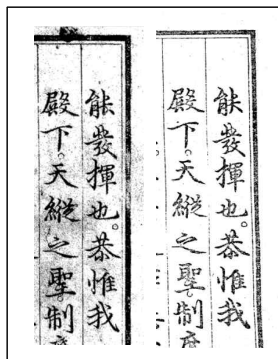
창'의 거성점도 '조선어학회본'에서는 삭제되었다.

다음은 이상의 구두점이나 권성점 또는 성점 이외의 번개에 해당한다.

〈그림 19〉에서는 왼쪽 위에 있는 글자 '中'은 그대로인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中의 세로획 가운데에 있는 점은 삭제되었다. 〈그림 20〉은 '을'의 모음 'ㅜ'가 'ㅡ'로 바뀐 예이고, 〈그림 21〉은 '能'의 끝에서 두 번째 획인 빼침이 탈락한 예이다.



안병희(1997)에서 제시한 이상의 비교를 통해 ‘훈민정음’의 권성이나 구두점 또는 성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는 ‘통문관본’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10)</sup>



### III. 『訓民正音』의 四聲

『훈민정음(해례본)』 〈합자해〉에서 ‘聲’이라고 부르는 ‘平聲, 上聲, 去聲, 入聲’은 중국 운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平 上, 去, 入’이라는 술어를 모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한국어의 성조와 漢語의 성조가 동일한 가치를 가졌는지의 여부라기보다는,<sup>11)</sup> 당시의 ‘일반언어학’이라고 할 수 있는 韻學에서 사용하던 술어와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시키면서도, 두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운소적 특징의 차이를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 1. 例義

주지하다시피 『훈민정음(해례본)』의 〈예의〉는 〈그림 22〉에서 보듯이 한문으로 되어 있고 『훈민정음(언해본)』의 〈예의〉는 〈그림 23〉에서 보듯이 한글 구결문과 언해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 ㄱ 牙音如君字初發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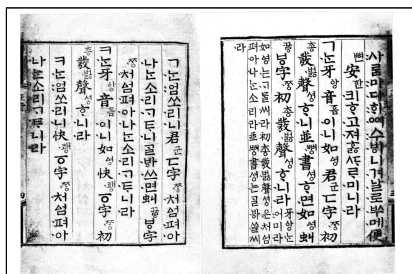
(2) ㄴ 牙音如君字 ㄴ 如聲君君 ㄴ 字 初發聲 ㄴ 聲 ㄴ 尼

10) 안병희(1997)에 드러나 있는 엄밀함은 내용 연구 이전에 자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갖추어야 함을 알려주는 지침이라고 하겠다.

11) 최세진은 『四聲通解』의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 두 언어의 성조 차이에 대해 “通攷內漢音字旁之點 雖與此同 而其聲之高低 則鄉漢有不同焉(사성통고의 중국음 글자의 방점은 이와 같으나 소리의 높낮이는 우리말과 중국음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 22〉『훈민정음(해례본)』〈예의〉



〈그림 23〉『훈민정음(언해본)』〈예의〉

- (3) ㄱ · ㄴ : 엄소 · 리 · 니 君군ㄷ字 · 쫑 · 처섬 · 퍼 · 아 · 나느 소 · 리 · ㄱ · ㅏ · ㅓ · ㅕ · ㅗ · ㅛ · ㅜ · ㅠ · ㅡ · ㅟ · ㅢ

(1)은 『훈민정음(해례본)』의 일부인데 〈예의〉에서는 한문 문장에 한글의 28자모의 예시만 보이고<sup>12)</sup> ‘並書如蚪字初發聲’처럼 병서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連書唇音之下則爲唇輕音 初聲合用則並書’와 같은 ‘○連書’와 ‘並書’의 원칙을 제시할 따름이다. 반면에 (2)와 (3)의 언해본에서는 개별 한자에 성조를 포함한 음을 달아 놓고 있다. 특히 (1)과 (2)를 비교할 때 (1)에 단순히 구결만 붙인다면 “ㄱ · ㄴ 牙音 · 이 · 니 如君字初發聲 ㅎ · 니”와 같이 되었을 텐데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2)에서 보듯이 모든 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아 놓았다. 『훈민정음(언해본)』의 경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완비된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와 같은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sup>13)</sup> 그러나 『훈민정음(해례본)』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완비되기 이전에 출간되었다. 그러다 보니 『훈민정음(해례본)』의 〈제자해〉에서 ‘君, 快, 呌, 業, 吞, 即, 侵, 洪, 譬’의 한자음으로 ‘군, 쾌, 꺾, 업, 툃, 즉, 침, 똥, 변’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그 표기는 동국정운식 표기와는 차

12) 자음 17자 ‘ㄱ, ㅋ, ㆁ, ㆁ, ㄷ, ㅌ, ㄴ, ㄹ,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와 모음 11자 ‘ㅏ,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ㅢ, ㅤ’.

13) 강신항(1987:144)에서는 『훈민정음(언해본)』이 『동국정운』의 완성(1447)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았고, 안병희(1990)에서는 『석보상절』의 간년인 1447년으로 소급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석보상절』의 간년보다 앞설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左:장·논 :원 너·기·라 加강·논 더을 ·씨·라 一·함·은 흐나·히·라  
 去·경聲·은 ·못노·폰 소·리·래  
 二·싱則·즉上:쌍聲·이·오  
 [二·싱·논 :둘히·라 上:쌍聲·은 ·쳐서·미 ㄴ·갑·고 乃·냉終중·이  
 노·폰 소·리·래  
 無무則·즉平평聲·이·오  
 [無무·논 :엇슬 ·씨·라 平평聲·은 ·못갓가·븐 소·리·래  
 入·십聲·은 加강點·덤·이 同똥而싱促·촉急·급·은 ·니·라  
 [入·십聲·은 쉼·리 긋든 소·리·라 促·촉急·급·은 섹·씨·래  
 (7) 들릿 字·중] 모·로·매 어·우리·사 소·리·이·니·니  
 :원 너·기 ㅎ 點·덤·을 더·면 ·못노·폰 소·리·오  
 點·덤·이 :둘히·면 上:쌍聲·이·오  
 點·덤·이 :엇스·면 平평聲·이·오  
 入·십聲·은 點·덤 더·우·믄 ㅎ 가·지로·딕 섹·니·라

『훈민정음(해례본)』의 (5)는 (6)의 구결문을 거쳐 (7)로 諺解되었는데, (7)에서는 점이 하나 있을 경우만 ‘못노폰 소리오’와 같이 번역되어 있고, 점이 두 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上聲’과 ‘平聲’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7)의 언해를 통해서도 점이 하나 있는 去聲의 음가만 확인할 수 있으나, (6)의 夾註를 참고한다면 거성은 ‘못노폰 소리’, 상성은 ‘쳐서미 ㄴ갑고 乃終이 노폰 소리’ 平聲은 ‘못갓가븐 소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기록은 평성은 낮은 소리이고 상성은 처음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이며 거성은 높은 소리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sup>17)</sup> 이 기술은 『훈민정음』

17) 『훈몽자회』에는 한자음 성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갓가·운 소·릭·옛 字·즈·논 平평聲·이·니 點·덤·이 :엇·고 기·리  
 ·히·나·중 들·티·논 소·릭·옛 字·즈·논 上:상聲·이·니 點·덤·이  
 :둘·히·오 곧·고 바르 노·폰 소·릭·옛 字·즈·논 去·거聲·이·니  
 點·덤·이 흐나·히·오 곧·고 섹 소·릭·옛 字·즈·논 入·입聲·이  
 ·니 點·덤·이 흐나·히·라 諺·언文·문·으·로 사·김·훈·딕 ㅎ·가·지·라

언해본의 설명과 비교할 때, 거성의 경우에는 ‘못노폰’의 ‘못’이 ‘곧고 바르’와 대응되는데 반해서 평성의 경우에는 ‘못갓가’의 ‘못’에 대응되는 표현이 없다. 그리고 상성에 대해서는 ‘길게 끌어서 나중에 올라가는 소리’라고 하여 높낮이만이 아니라 길이에 대한 증언도 하고 있다. 입성에 대해서는 점이 하나라고 하였는데 김완진(1973/1977:5)에서는 여기서 지칭하는 入聲은 漢字音의 去聲의 入聲

에 기록되어 있는 四聲 중 평성과 상성 그리고 거성이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런데 (7)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上聲’과 ‘平聲’은 諺解하지 않고 한자어로 그대로 제시하면서, ‘去聲’만 ‘뭇노퐁 소리’로 언해했다는 사실이다. 안병희(1990)에서는 이처럼 (7)의 언해에서 ‘去聲’을 ‘去聲’으로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한국한자음의 입성이 거성으로 발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음의 (8)은 〈합자해〉에서 성조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구절은 “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이다.

- (8) 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근爲柱 넙爲脅 或似上聲 如난爲穀 : 衄爲繪 或似去聲 如 ·뭇爲釘 ·입爲口之類 其加點則與平上去同<sup>18)</sup>

이 문제에 대해 안병희(1990)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9) 1점은 거성이 아니라 ‘뭇 노퐁 소리’란 성조로 파악하도록 하여 한자음 입성이 거성으로 되는 일을 피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언해본의 이른바 오역은<sup>19)</sup> 실수에 의한 잘못이 아니다. 방점으로는 거성과 같아진 한자음의 입성을 거성과 구별하기 위한 장치로써 마련된, 고심에 찬 번역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동국정운』의 성조 분류에서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거성과 입성에 대해 모두 하나의 점을 찍고 있다. 운서의 성조

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증언은 한자음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한 것이지만, 결국 漢音이 아니라 한국한자음에 해당하므로 그 성조는 한국어의 성조를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18) 중국 자음(字音)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치 않아서, 혹은 평성과 비슷하여 ‘근(柱), 넙(脅)’과 같이 되고, 혹은 상성과 비슷하여 ‘난(穀), :衄(繪)’과 같이 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하여 ‘·뭇(釘), ·입(口)’과 같이 되는데, 점을 찍는 것은 평성·상성·거성의 경우와 같다.
- 19) 안병희(1990)의 ‘각주 5)’에 의하면 ‘뭇노퐁 소리’를 오역으로 본 견해는 학계에서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고, 1972년판과 1986년판 고등학교용 국정교과서의 각주에 나타난다. (‘뭇 노퐁 소리오’는 ‘去聲이오’의 원전 오기임〈『국어』 3(1975년 초판 p.66 주 2) / ‘뭇 노퐁 소리오’는 ‘去聲이오’임〈『국어』 3(1986년 초판, p.43 주 1)〉)

체계에서는 거성과 입성이 서로 분리되어야 하는데,<sup>20)</sup> 한국한자음에서는 이 둘이 동일하게 높은 소리로 실현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로 해석된다.

『훈민정음(언해본)』의 〈예의〉에 표현된 언해문의 한자음과 『동국정운』의 한자음의 성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을 보면 『동국정운』의 ‘去聲’과 ‘入聲’은 언해문에서는 ‘뫋노푼 소리’에 해당한다. 만약 이 ‘뫋노푼 소리’를 다음의 〈표 2〉처럼 ‘거성’으로 그대로 두었다면, ‘동국정운 성조 단위’의 入聲이 ‘언해 성조 단위’의 거성에 해당하게 되면서 동일한 용어 사용으로 인해 결국은 ‘동국정운 성조 단위’의 去聲에도 속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했을 것이다. 위의 (9)에 보인 안병희(1990)의 설명은 〈표 2〉를 토대로 기술하면 『동국정운』의 四聲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 1〉처럼 ‘평성, 상성, 뫋노푼 소리’로 번역에 차이를 두었으리라는 해석이다.

〈표 1〉 『훈민정음(언해본)』과 『동국정운』의 성조 비교(뫋노푼 소리)

| 성점 | 언해 성조 단위 | 동국정운 성조 단위 | 한자음 종성        |
|----|----------|------------|---------------|
| 0  | 평성       | 平聲         | ㄴ, ㄹ, ㄷ, ㄱ, ㅁ |
| 2  | 상성       | 上聲         | ㄴ, ㄹ, ㄷ, ㄱ, ㅁ |
| 1  | 뫋노푼 소리   | 去聲         | ㄴ, ㄹ, ㄷ, ㄱ, ㅁ |
|    |          | 入聲         | ㄱ, ㅁ, ㅂ       |

〈표 2〉 『훈민정음(언해본)』과 『동국정운』의 성조 비교(去聲)

| 성점 | 언해 성조 단위 | 동국정운 성조 단위 |
|----|----------|------------|
| 0  | 평성       | 平聲         |
| 2  | 상성       | 上聲         |
| 1  | 거성       | 去聲         |
|    |          | 入聲         |

20) 동국정운의 표기법에 의하면 입성자들은 종성이 ‘ㄱ, ㅁ, ㅂ’로 한정되어 있고 거성자들은 나머지 종성인 ‘ㄴ, ㄹ, ㄷ, ㄱ, ㅁ’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한자음과 달리 고유어의 경우는 ‘평성’과 ‘상성’ 그리고 ‘뫋노푼 소리’로 나눈 체계에서 ‘썰리 굿든 소리’인 입성은 성조가 아니라 종성에 의한 분류이므로 <표 1>의 세 가지의 성조 어디에 배당되든 문제가 없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 앞에서 본 (5)의 한문 표현이나 (6)의 구결문 표현에는 성조에 대한 언해 과정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고, 去聲을 그대로 ‘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해 과정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여 去聲을 ‘뫋노푼 소리’로 바꾸었는데, 그 번역의 원문은 ‘거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표 2>와 같은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점은 『훈민정음(해례본)』 편찬 당시에는 『동국정운』의 편찬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훈민정음(해례본)』 편찬 시에는 ‘蚩’나 ‘洪’을 ‘𪛗’와 ‘𪛘’으로 표기하는 방식의 초성의 병서 원칙은 확정되었지만, 종성에 ‘ㅇ, ㅁ’을 쓰거나 한국한자음에서 ‘ㄹ’ 종성으로 발음되는 한자음을 ‘ㄷ’ 종성으로 표기하는 방식은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듯이 성점 표기 방식도 『훈민정음(해례본)』과 『훈민정음(언해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표기 원칙에 성점 표기 원칙도 포함될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입성이 거성과 같이 발음됨으로 인해, 平上去入의 네 개의 성조 단위를 설정하는 방식과 平上去의 세 개의 성조 단위만 설정하고 입성은 促急으로만 기술하는 <표 4>와 같은 방식 사이에서 고민을 했을 수도 있다. (8)에서 제시한 “文之入聲 與 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이라는 기술도 그러한 고민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3> 한자음 표기 비교

|   | 해례본    | 언해본     | 동국정운            |
|---|--------|---------|-----------------|
| 快 | 쾌(초성해) | · 켱(예의) | · 켱(5,36a) / 거성 |
| 蚩 | 쪼(초성해) | 꺄(예의)   | 꺄(4,35a) / 평성   |
| 𪛗 | 변(종성해) |         | · 뵐(3,17a) / 입성 |

〈표 4〉 『훈민정음(해례본)』 편찬 시 성점과 성조에 대한 인식 추정

| 성점 | 한자음 |    | 고유어 |    |
|----|-----|----|-----|----|
| 0  | 평성  |    | 평성  | 입성 |
| 2  | 상성  |    | 상성  | 입성 |
| 1  | 거성  | 입성 | 거성  | 입성 |

결국 『훈민정음(언해본)』에서는 언해를 할 때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서술한 (5)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결문을 만들었지만, 언해 과정에는 『동국정운』의 사성 체계에 대한 고민이 새롭게 추가되어 〈표 1〉과 같이 ‘뭇노픈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 2. 制字解

〈제자해〉에서는 사성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예의〉에서도 새로 만든 것은(新制) 28자라고만 언급하고 있듯이 ‘制字’를 설명하는 자리에 성점이 들어갈 여지를 두지 않았다. 이는 결국 성점으로 표기되는 단위가 초성, 중성, 종성의 단위와는 다른 유형임을 인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현대 음운론에서 음소와 운소를 나누는 방식과 동일한 인식이 들어 있는 체제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은 〈제자해〉에서 자음과 모음 28자에 대해서는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성점에 대해서는 표기 방식만 제시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 그러한 표기를 고안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자음 표기에서 성조를 밝히기 위해 글자의 상하좌우에 圈點을 돌려 찍는 방법은 있었지만, 그러한 권점 표기 방식을 가져와서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를 하여 성점 표기 방식을 고안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별도의 과정을 거쳐 성점 표기법이 만들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자해〉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성점 자체가 〈제자해〉의 기술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기존의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논의들에서 자음자와 모음자의 자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성점 표



기 방식의 연원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앞으로 풀어나야 할 문제이다.<sup>21)</sup>

### 3.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

여기서는 〈初聲解〉, 〈中聲解〉, 〈終聲解〉에서 성조를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슴字’가 이루어진 후에라야 四聲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데, 다음은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에 슴字된 글자가 나타난 예이다.

- (10) 〈초성해〉 牙音 君字初聲是ㄱ ㄱ與ㄴ而爲君. 快字初聲是ㅋ ㅋ與ㄴ而爲쾌. 蚪字初聲是ㄲ ㄲ與ㄴ而爲蚪. 業字初聲是ㅇ ㅇ與ㄴ而爲업之類.<sup>22)</sup>
- (11) 〈중성해〉 舌字中聲是ㅇ居ㅌㄴ之間而爲튼. 卽字中聲是ㅡ 一居ㅌㄴ之間而爲즉. 侵字中聲是ㅣ ㅣ居ㅌㄴ之間而爲침之類.<sup>23)</sup>
- (12) 〈종성해〉 卽字終聲是ㄱ ㄱ居ㅌ終而爲즉. 洪字終聲是ㅇ ㅇ居ㅎ終而爲홍之類. (중략) 然ㄱㅇㅌㄴㅌㅌㅌㅌㅌㅌ八字可足用也. 如빛꽃爲梨花 열·의갯爲狐皮 (중략) ㅌ如별爲鶯 ㄴ如군爲君 ㅌ如업爲業 ㅌ如땀爲覃 ㅌ如諺語·옷爲衣 ㅌ如諺語·실爲絲之類.<sup>24)</sup>

- 
- 21) 이기문(1972/1977:142-143)에서는 상성에 대해 두 점을 찍는 방법은 ‘슴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22) 어금닛소리 ‘君’자의 초성은 곧 ‘ㄱ’인데 ‘ㄱ’이 ‘군’과 어울려 ‘군’이 되고, ‘快’자의 초성은 곧 ‘ㅋ’이니 ‘ㅋ’이 ‘내’와 어울려 ‘쾌’가 된 것이고 ‘蚪’자의 초성은 ‘ㄲ’인데 ‘ㄲ’이 ‘ㄴ’과 합하여 ‘蚪’가 되고 ‘業’자의 초성은 ‘ㅇ’인데 ‘ㅇ’이 ‘ㄴ’과 어울려 ‘업’이 되는 따위와 같다.
- 23) ‘呑’자의 중성은 ‘ㅇ’인데 ‘ㅇ’이 ‘ㅌ’과 ‘ㄴ’ 사이에서 ‘튼’이 되고 ‘卽’자의 중성은 곧 ‘ㅡ’인데 ‘ㅡ’는 ‘ㅌ’과 ‘ㄴ’ 사이에 있어서 ‘즉’이 되고 ‘侵’자의 중성은 곧 ‘ㅣ’인데 ‘ㅣ’가 ‘ㅌ’과 ‘ㅌ’ 사이에 있어서 ‘침’이 되는 따위와 같다.
- 24) ‘卽’자의 중성은 곧 ‘ㄱ’인데 ‘ㄱ’은 ‘즈’의 끝에 있어서 ‘즉’이 되고, ‘洪’자의 중성은 곧 ‘ㅇ’인데 ‘ㅇ’은 ‘호’의 끝에 있어서 ‘홍’이 되는 따위와 같으며 (중략) ‘ㄱ, ㅇ, ㄴ, ㄴ, ㅌ, ㅌ, ㅌ, ㅌ, ㅌ, ㅌ, ㅌ, ㅌ’ 여덟 자만으로 쓰기에 족하다. 예를 들면 ‘梨花’가 ‘빛꽃’이 되고 ‘狐皮’가 ‘열의갯’이 되건만 (중략) ‘ㅌ’은 ‘별’이 ‘鶯’(‘별’의 중성 ㅌ) 됨과 같고 ‘ㄴ’은 ‘군’이 ‘君’(‘군’의 중성 ㄴ) 됨과 같고 ‘ㅌ’은 ‘업’이 ‘業’(‘업’의 중성 ㅌ) 됨과 같고 ‘ㅌ’은 ‘땀’이 ‘覃’(‘땀’의 중성 ㅌ) 됨과 같고 ‘ㅌ’은 우리말로 ‘옷’이 ‘衣’(‘옷’의 중성 ㅌ) 됨과 같으며 ‘ㅌ’은 우리말로 ‘실’

〈표 5〉 『동국정운』의 23字母

|     | 全淸     |        |        | 次淸     |        |        | 全濁     |        |        | 不淸不濁   |        |        | 全淸     |        |        | 全濁     |        |        |
|-----|--------|--------|--------|--------|--------|--------|--------|--------|--------|--------|--------|--------|--------|--------|--------|--------|--------|--------|
|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字<br>母 | 字<br>音 | 聲<br>調 |
| 牙 音 | 君      | 군      | 平      | 快      | 쾌      | 去      | 蚪      | 꾸      | 平      | 業      | 업      | 入      |        |        |        |        |        |        |
| 舌 音 | 斗      | 두      | 上      | 吞      | 툰      | 平      | 覃      | 담      | 平      | 那      | 낭      | 平      |        |        |        |        |        |        |
| 脣 音 | 鶯      | 별      | 入      | 漂      | 표      | 平      | 步      | 부      | 去      | 彌      | 밍      | 平      |        |        |        |        |        |        |
| 齒 音 | 卽      | 즉      | 入      | 侵      | 침      | 平      | 慈      | 중      | 平      |        |        |        | 戌      | 슌      | 入      | 邪      | 쌍      | 平      |
| 喉 音 | 挹      | 읍      | 入      | 虛      | 형      | 平      | 洪      | 홍      | 平      | 欲      | 욕      | 入      |        |        |        |        |        |        |
| 半舌音 |        |        |        |        |        |        |        |        |        | 閭      | 령      | 平      |        |        |        |        |        |        |
| 半齒音 |        |        |        |        |        |        |        |        |        | 穰      | 상      | 平      |        |        |        |        |        |        |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음가를 보이기 위해 제시하는 한자는 〈표 5〉에서 보듯이 『동국정운』의 23자모에 해당하는 글자들인데, 〈초성해〉에는 ‘君 군, 快쾌, 蚪꾸, 業업’이 제시되어 있고, 〈중성해〉에는 ‘吞툰, 卽즉, 侵침’이 제시되어 있으며 〈종성해〉에는 ‘卽즉 君군 業업’이 다시 나오고, 추가로 ‘洪홍’과 ‘鶯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종성해〉에는 고유어로 ‘빛곳, 열·의갓, ·웃, :실’이 제시되어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에 제시된 한자음의 표기와 〈표 5〉의 『동국정운』의 한자음 표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에서 보듯이 동국정운에 하나의 점이 찍혀 있는 거성자와 입성자에 대해 『훈민정음(해례본)』에서는 일체의 점을 찍지 않았다. 이것은 평성으로 표기하였다고보다는 성점 자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처리는 〈중성해〉에서 고유어에 대해 ‘열·의갓, ·웃, :실’처럼 성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기한 방식이나 〈합자해〉나 〈용자례〉에서 고유어의 성조를 표시한 방식과는 다르다.

『훈민정음(해례본)』의 편찬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앞에서 논의했듯이 이것 역시 『훈민정음(해례본)』 편찬 시

이 ‘絲(‘실’의 종성 ‘ㄹ’)’ 뒤와 같은 따위다.

〈표 6〉 『훈민정음(해례본)』과 『동국정운』 한자음 표기

| 제시 한자 | 해례본 |    | 동국정운 |       |
|-------|-----|----|------|-------|
|       | 한자음 | 성점 | 한자음  | 성점    |
| 君     | 군   | 0  | 군    | 0     |
| 快     | 쾌   | 0  | 캬    | 1     |
| 蚪     | 꾸   | 0  | 꾸    | 0     |
| 業     | 업   | 0  | 업    | 1(入聲) |
| 呑     | 툰   | 0  | 툰    | 0     |
| 卽     | 즉   | 0  | 즉    | 1(入聲) |
| 侵     | 침   | 0  | 침    | 0     |
| 洪     | 홍   | 0  | 홍    | 0     |
| 譬     | 별   | 0  | 별    | 1(入聲) |

가 동국정운 한자음의 완성 시기보다는 앞서고, 이때는 아직 개별 한자음의 성조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성조는 平上去入의 네 단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한국한자음에서는 입성이 거성으로 실현되어 한자음의 성조를 셋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불합치 문제로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성조에 대한 고민은 『동국정운』의 序에서도 발견된다.

(13)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sup>25)</sup>

(13)은 원래 上聲字였던 것과 去聲字였던 것들이 당시의 한국한자음에서 동일하게 실현되지 않고 섞였음을 지적한 내용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김완진(1973/1977:19)에서는 한국한자음 형성기의 중국어의 상성과 거성이 ‘우리 先民들의 귀에는’ 다 같이 비슷하게 들릴 만큼 유사성을 가졌던 성조였으며, 상성이나 거성의 글자 중 일부의 성조가 바뀐 게 아니라 上聲字와 去聲字가 하나의 단위가 된 후 〈표 7〉과 같이 한국한자음에서 재편성된 것으로 파악

25) 말소리에는 사성이 매우 명확한데 한국한자음에서는 상성과 거성의 구별이 없다.

하였다(김완진 1973/1977:26).<sup>26)</sup>

한편 최세진도 한국한자음에 성점 표기를 하였을 때의 성조와 중국음에 성점 표기를 하였을 때의 성조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사성통해』 〈범례〉에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 (14) 今俗呼入聲諸字 或如全濁平聲 或如全清上聲 或如去聲 其音不定 若依通攷加一點則 又恐初學之呼一如去聲 故亦不加點<sup>27)</sup>

최세진의 고민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한자음에 성점을 달지 않은 것과 동일한 이유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세진은 입성에 대해 『사성통고』처럼 하나의 점을 달면 한국한자음의 거성처럼 발음될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성점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최세진의 고민과 『훈민정음(해례본)』 편찬자들의 고민이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두 고민 모두 한자음에서 입성이 거성으로 실현된다는 문제였다.

〈표 7〉 성조 재편성

| 한어 |       | 한국어 |
|----|-------|-----|
| 평성 | ————— | 평성  |
| 상성 | ————— | 상성  |
| 거성 | ————— | 거성  |
| 입성 | ————— |     |

26) 『소학언해』 범례에도 ‘上去相混’이라고 되어 있다. 이기문(1972/1977:151)에서는 이 점을 ‘東音 聲調’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았다.

27) 지금 입성 여러 글자를 소리 낸은 더러는 전탁의 평성과 같고 더러는 전청의 상성과 같고 더러는 거성과 같아서 그 소리가 일정하지 않다. 만약 『사성통고』에 따라서 한 점을 달면 처음 배우는 사람의 소리 냄이 거성과 한 가지로 같게 소리 날까 두려우므로 점을 달지 않는다. (번역은 권재선(1987)을 따랐다.)

한편 〈중성해〉에 따르면 한자음으로는 중성이 존재하지 않는 ‘ㅅ’과 ‘ㄹ’에 대해 고유어 단어를 제시하며 ‘·의, ·웃, ·실’에서 비로소 성점이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낸다. 해례본 편찬자들이 설명의 체계상으로 볼 때, 성조가 붙을 수 있는 단위를 보여주는 합자해 이전에는 성점 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한자음만이 아니라 고유어에서도 성점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유어에 대한 태도는 한자음과 달랐다. 이는 고유어의 성조를 달리 취급한 게 아니라 앞에서 살폈듯이 한자음의 성조를 달리 취급했다고 보아야 한다.

#### 4. 合字解

〈합자해〉에서는 並書를 제시하면서 고유어 단어 중 초성 합용병서의 예로 ‘ㅅ(去), ㅍ(平), ㅎ(去), ㅎ(去), ㅍ여(平去), ㅍ여(平去), 소다(平去), ㅅ다(平去)’가 제시되었고, 중성 합용의 예로 ‘과(去) ㄱ(去)’, 중성 합용의 예로 ‘ㅎ(平), ㄴ(去)’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는 성조 표기(정확히는 거성 표기)를 보여준다. 그리고 한자와 고유어를 섞어 쓰는 예로 ‘孔子 | 魯ㅅ사람(上平)’을 제시하며 상성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15) 〈합자해〉 初聲 二字三字合用並書 如諺語 ·ㅅ(去)爲地 ㅍ(平)爲隻 ·ㅍ(平)爲隙之類 各自並書 如諺語 ·ㅎ(去)爲舌而 ·ㅎ(去)爲引 ㅍ ·여(平)爲我愛人而 ㅍ ·여(平)爲人愛我 소 ·다(平)爲覆物而 ㅅ ·다(平)爲射之類 中聲 二字三字合用 如諺語 ·과(去)爲琴柱 ·ㄱ(去)爲炬之類 終聲 二字三字合用 如諺語 ㅎ爲土 ·ㄴ(去)爲釣 ㄴ ·ㅍ(平)爲酉時之類 (중략) 文與諺雜用則 (중략) 如孔子 | 魯ㅅ(上平)사람之類.<sup>28)</sup>

28) 초성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우리말의 ‘·ㅅ(去)’로 ‘地’를 표기하고, ‘ㅍ(平)’으로 ‘隻’을 표기하고 ‘·ㅍ(平)’으로 ‘隙’을 표기하는 따위와 같다. 각자병서는 가령 우리말의 ‘·ㅎ(去)’로 ‘舌’을 표기하는데 ‘·ㅎ(去)’는 ‘引’을 표기하며, ‘ㅍ ·여(平)’는 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뜻인데 ‘ㅍ ·여(平)’는 남에게서 내가 사랑받는다는 뜻이 되며, ‘소 ·다(平)’는 물건을 덮는다는 뜻이고 ‘ㅅ ·다(平)’는 무엇을 쏜다는 뜻이 되는 따위와 같다. 중성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우리말의 ‘·과(去)’로 ‘琴柱’를 표기하고 ‘·ㄱ(去)’로 ‘炬(炬)’을 표기함과 같다. 중성을 두 글자, 세 글자 아울러 쓰는 것은 가령 우리말의 ‘ㅎ(平)’이 ‘土’를 표기하고 ‘·ㄴ(去)’이

『훈민정음(해례본)』에서 한국어(諺語)의 성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예시가 나오는 것은 〈합자해〉의 뒷부분이다.<sup>29)</sup>

- (16) 諺語平上去入 如 𢶏爲弓而其聲平 𢶏爲石而其聲上 𢶏爲刀而其聲去 𢶏爲筆而其聲入之類.<sup>30)</sup>
- (17) 凡字之左 加一點爲去聲 二點爲上聲 無點爲平聲<sup>31)</sup>
- (18) 文之入聲 與去聲相似 諺之入聲無定 或似平聲 如 𢶏爲柱 𢶏爲脅 或似上聲 如 𢶏爲穀 𢶏爲緇 或似去聲 如 𢶏爲釘 𢶏爲口之類 其加點則與平上去同.<sup>32)</sup>
- (19) 平聲安而和 春也 萬物舒泰 上聲和而舉 夏也 萬物漸盛 去聲舉而壯 秋也 萬物成熟 入聲促而塞 冬也 萬物閉藏.<sup>33)</sup>

(16)은 한국어의 平上去入에 어떠한 예가 있는지 보여주며, 평성의 예로 ‘𢶏’을, 상성의 예로 ‘𢶏’을, 거성의 예로 ‘𢶏’을 들고 있고 입성의 예로는 ‘𢶏’을 들었다. 평성과 상성, 거성 모두 ‘ㄹ’로 끝나는 단어를 제시하였는데, 입성은 입성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半舌音 ‘ㄹ’이 종성인 예는 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舌音 ‘ㄷ’이 종성인 예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釘’을 표기하며, ‘𢶏·𢶏’로 ‘酉時’를 표기함과 같다. (중략) 한자와 한글을 섞어 쓸 경우에는 (중략) 가령 ‘孔子 魯人:사름’이라고 쓰는 따위와 같다.

- 29) 합자해 제일 끝에 ‘기 𢶏’의 合字 예가 나오는데 이것을 평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합자가 되었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점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30) 우리말의 ‘평·상·거·입’의 예를 들면, ‘𢶏’은 ‘弓’이고 평성이며, ‘𢶏’은 ‘石’이고 상성이며, ‘𢶏’은 ‘刀’이고 거성이요, ‘𢶏’은 ‘筆’인데 그 소리는 입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 31) 무릇 글자(음절)의 왼쪽에 한 점을 찍으면 거성이고, 두 점을 찍은 것은 상성이며, 점이 없는 것은 평성이다.
- 32) 한자음의 입성은 거성과 서로 비슷하나, 우리말의 입성은 일정치 않아서, 혹은 평성과 비슷하여 ‘𢶏(柱), 𢶏(脅)’과 같이 되고, 혹은 상성과 비슷하여 ‘𢶏(穀), 𢶏(緇)’과 같이 되며, 혹은 거성과 비슷하여 ‘𢶏(釘), 𢶏(口)’과 같이 되는데, 점을 찍는 것은 평성·상성·거성의 경우와 같다.
- 33) 평성은 편안하고 부드럽워서(安而和) 봄에 해당되어 만물이 천천히 피어나고, 상성은 부드럽고 높으니(和而舉) 여름에 해당되어 만물이 점점 무성해지고, 거성은 높고 씩씩하니(舉而壯) 가을에 해당되어 만물이 무르익고, 입성은 빠르고 막히니(促而塞) 겨울에 해당되어 만물이 숨고 감추어짐과 같다.

현대 언어학의 최소대립쌍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가능하면 종성을 통일하려고 노력하였던 흔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고유어의 입성은 평성과 상성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데 (16)에서는 한자음의 입성처럼 거성의 예만 들고 있다. 그리고 한자음과 고유어의 입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은 (18)에서 보여 준다.

(17)은 聲調의 표기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각 음절의 왼쪽에 점 하나를 더하면 거성이고 둘을 더하면 상성이며 점이 없으면 평성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의〉에서 본 (5)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

(18)에서는 漢音의 入聲이 한국한자음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18)의 ‘文之入聲’은, 漢字音의 ‘入聲’을 지칭하는 것이고 ‘與去聲相似’의 ‘去聲’ 역시 한자음의 ‘去聲’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漢音으로는 입성과 거성이 구분되지만 한국한자음에서는 입성이 거성과 같아진다고 기술한 내용이다. 한자음의 성조를 표기할 때 漢音을 기준으로 거성과 입성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한자음에 대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김완진 1973/1977:9). 그리고는 한국어에서는 입성이 운소로서 의미가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예의〉에서는 입성에 대해 ‘入聲加點同而促急’이라고 간단하게 기술하였는데, 『훈민정음(해례본)』에서 입성에 대한 별개의 가점법을 마련하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 입성에 대한 인식이 ‘平·上·去’에 대한 인식과는 내용면에서 그리고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완진 1973/1977:2). 운학의 틀에 존재하는 入聲의 개념을 들여왔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운소로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폐쇄음 ‘ㄱ, ㄷ, ㅂ’로 끝나는 음절에 대한 기술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34)</sup>

(19)는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음상을 보여주며 각각의 특성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설명은 『元和新聲韻譜(唐, 處忠)』를 비롯한 중국 운서에 자주 나오는 사성에 대한 설명인데,<sup>35)</sup> 여기서는 ‘평성, 상성,

34) 중국 음운학에서도 韻尾가 [p], [t], [k]로 된 韻母를 入聲韻이라고 한다(崔義秀李義活, 1990 참조).

35) 장신항(1987:127-128) ‘각주 101’ 참조. 이러한 설명은 『훈몽자회』 〈범례〉에도

거성'을 순서대로 “安而和, 和而舉, 舉而壯”이라고 표현하였다. ‘安, 和, 舉, 壯’이라는 술어 자체의 의미를 현대적인 술어로 정확하게 옮기기는 어려우나, 평성과 상성은 ‘和’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상성과 거성은 ‘舉’라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중시하게 되는 기록은 『훈민정음(諺解本)』의 ‘平聲은 못 늦가본 소리’, ‘上聲은 처서미 늦잡고 乃終이 노픈 소리’, ‘去聲은 못노픈 소리’, ‘入聲은 썰리 굿든느 소리’라는 기술이다. 평성과 상성 사이에 ‘늦잡-’이라는 공통점이 보이며, 거성과 상성 사이에도 ‘높-’이라는 공통점이 보이므로 ‘和’와 ‘舉’가 결국 이들의 특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합자해〉의 四聲에 대한 기술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에는 平上去入의 성조가 있음을 기술하였으며, 그 표기는 음절 단위로 묶여 쓰는 글자의 왼편에 점을 더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고유어 이외의 한자음이 문제가 되었다. 漢音에서는 거성과 입성이 구분되지만 한국한자음에서는 입성이 거성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한자음에서 입성의 음가를 별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유어의 입성이 문제가 될 것인바 (18)에서 고유어의 경우는 입성과 거성이 같아지지 않음을 밝혔다. 한국어에서는 입성이 漢語의 입성과는 달라, 독자적인 성조의 요소로서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중국 운학의 사성 체계를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入聲이라는 존재가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입성에 대해서만은 별도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 5. 用字例

〈用字例〉에는 고유어 단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sup>36)</sup> 이 예들에는 당연히 성점이 표기되어 있다.

그대로 이어진다. 平聲哀而安 上聲厲而舉 去聲清而遠 入聲直而陡 평성은 슬픈 듯 편안하며, 상성은 거세고 들리며, 거성은 맑고 멀며, 입성은 곧고 빠르다.]

36) 안병희(2002)에서는 한자음의 한글 주음이 〈용자례〉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의 표기 실례가 앞에서 이미 제시되었고, 모든 한자음을 주기한 『동국정운』의 편찬이 착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20) 〈용자례〉

|                          |                         |
|--------------------------|-------------------------|
| 初聲 ㄱ 如: 감爲柿 · 굴爲蘆.       | ㅋ 如: 우 · 케爲未春稻 · 콩爲大豆.  |
| ㅇ 如: 러 · 울爲獺 · 서 · 에爲流澌. | ㆁ 如: 뒤爲茅 · 담爲牆.         |
| ㄷ 如: 고 · 티爲蘭 · 두텁爲蟾蜍.    | ㄴ 如: 노로爲獐 · 남爲猿.        |
| ㅈ 如: 들爲臂 · 벌爲蜂.          | ㅊ 如: 파爲葱 · 풀爲蠅.         |
| ㄴ 如: 피爲山 · 마爲薯蕷.         | ㄷ 如: 사 · 비爲蝦 · 드 · 비爲瓢. |
| ㅈ 如: 자爲尺 · 조 · 히爲紙.      | ㅊ 如: 채爲簾 · 채爲鞭.         |
| ㅅ 如: 손爲手 · 섬爲島.          | ㅆ 如: 부형爲 鵲 · 힘爲筋.       |
| ㅇ 如: 비육爲鷄雛 · 낙암爲蛇.       | ㄹ 如: 무뎡爲蜃 · 어 · 름爲水.    |
| ㄷ 如: 아스爲弟 · 너스爲鴉.        |                         |

|                                       |  |
|---------------------------------------|--|
| 中聲 · 如: ㄷ 爲頤 · ㅍ 爲小豆 · ㄷ 爲橋 · ㄴ 爲椀.   |  |
| 一 如: 물爲水 · 발 · 측爲跟 · 그럭爲鴈 · 드 · 레爲汲器. |  |
| ㅣ 如: 갓爲巢 · 밀爲蠟 · 피爲稷 · 키爲箕.           |  |
| ㅊ 如: 논爲水田 · 톱爲鉅 · 호 · 띠爲鉏 · 버 · 로爲硯.  |  |
| ㅈ 如: 밥爲飯 · 남爲鎌 · 이 · 아爲綜 · 사 · 습爲鹿.   |  |
| ㅈ 如: ㄷ 爲炭 · 울爲籬 · 누 · 에爲蚕 · 구 · 리爲銅.  |  |
| ㅈ 如: 브섬爲籠 · 널爲板 · 서 · 리爲霜 · 버 · 들爲柳.  |  |
| ㅈ 如: 종爲奴 · 고음爲槽 · 소爲牛 · 삼도爲蒼朮葉.       |  |
| ㅈ 如: 남상爲龜 · 약爲蠃 · 다 · 아爲匣 · 자갈爲蕎麥皮.   |  |
| ㅈ 如: 율爲薏苡 · 죽爲飯 · 슈 · 름爲雨 · ㅈ 爲輓.     |  |
| ㅈ 如: ㅈ 爲飴 · ㅈ 爲佛寺 · ㅈ 爲稻 · ㅈ 爲燕.      |  |

|                      |                     |
|----------------------|---------------------|
| 終聲 ㄱ 如: ㄷ 爲楮 · ㅍ 爲瓠. | ㅇ 如: ㅈ 爲蟻 · ㅈ 爲蟬.   |
| ㆁ 如: ㅈ 爲笠 · ㅈ 爲楓.    | ㄴ 如: ㅈ 爲履 · ㅈ 爲螢.   |
| ㅈ 如: ㅈ 爲薪 · ㅈ 爲蹄.    | ㅈ 如: ㅈ 爲虎 · ㅈ 爲泉.   |
| ㅈ 如: ㅈ 爲海松 · ㅈ 爲池.   | ㄹ 如: ㅈ 爲月 · ㅈ 爲星之類. |

(20)을 보면 〈용자례〉의 초성과 중성의 예로는 각각 2개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고, 중성의 예는 각각 4개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sup>37)</sup> 안병희(2002)에서는 중성의 경우 이처럼 네 개의 용례가 제시된 이유에 대해, 중성을 위해 든 예들 중 앞의 두 예는 초성과 해당 중성 그리고 중성이 모두 갖추어

37) 『훈민정음(해례본)』에서 한자음의 제시는 『동국정운』의 23자모의 글자를 토대로 하였는데, 〈용자례〉에 제시된 단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앞으로 〈용자례〉의 단어 선택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참고한 物名類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표 8〉 용자레 제시어의 성조형

| 성조 | 개수 | 초성 예                          | 중성 예                                       | 종성 예          |
|----|----|-------------------------------|--|---------------|
| 平  | 12 | 콩, 남, 불, 풀, 채                 | 숫, 약, 죽                                    | 닥, 독, 신, 섬    |
| 去  | 29 | 굴, 뒤, 담, 파, 마, 자, 채, 손, 힘     | 특, 쫓, 물, 갓, 피 키, 논, 톱, 밥, 난, 울, 쇼, 옛, 덜, 버 | 갈, 신, 굽, 못, 들 |
| 上  | 11 | 감, 벌, 뽕, 섬                    | 밀, 널, 종                                    | 범, 심, 잣, 별    |
| 平平 | 11 | 두텁, 노로, 아수                    | 드리, 그럭, 브쉽, 삼도, 남상, 자감, 울미, 주련             |               |
| 平去 | 19 | 우캐, 리울, 서예, 고티, 드뵈, 사뵈 조히, 어름 | 드레, 호미, 벼로 이야, 사슴, 누에 구리, 서리, 버들 다야, 슈름    |               |
| 平上 | 0  |                               |  |               |
| 去平 | 8  | 부형, 비육, 박암, 무뽕                | ㄱ래, 고음                                     | 올창, 반되        |
| 去去 | 1  |                               | 발촉   |               |
| 去上 | 0  |                               |  |               |
| 上平 | 3  | 너시                            | 저비   | 굶병            |
| 上去 | 0  |                               |  |               |
| 上上 | 0  |                               |  |               |

진 단어들이고 뒤의 두 예는 초성과 해당 중성만 있는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표 8〉은 이러한 예들을 성조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8〉을 보면 중성의 예에 平平과 平去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용자레〉에서 8중성을 위해 제시된 단어의 총 수가 각 중성에 두 개씩 16개이기 때문에 생겨난 분포이지<sup>38)</sup> 성조와 관련된 특이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平上, 去上, 上上처럼 제2음절에 상성을 가진 단어나 上去로 실현되는 단어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去去의 성조형으로 제시된 단어로는 ‘발촉’ 하나만 제시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38) ㄱ: 닥, 독 / ㅎ: 굶병, 올창 / ㄷ: 갈, 실 / ㄴ: 신, 반되 / ㅁ: 섬, 굽 / ㅂ: 범, 심 / ㅅ: 잣, 못 / ㄹ: 들, 별

우선 상성을 제2음절에 가진 단어가 제시되지 않은 이유는 15세기에 그러한 단어가 드물었고, 있어도 대개는 ‘삿둡(去上), 한숨(去上), 목숨(平上), 쫓벌(平上)’처럼 합성어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sup>39)</sup> 〈용자례〉에 제시되는 단어는 가능한 단일어로 한정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표8〉을 보면 합성이 ‘발측’이 발견된다. 去去의 예로는 ‘발측’ 하나만 제시되어 있는데, 거성으로 시작하는 ‘부형, 비육, ㅼ암, 무튀, ㄱ래, 고음, 올창, 반되’는 ‘발측’과 달리 모두 去平의 성조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去去로 제시된 ‘발측’이 용자례에 제시된 예 중에서 유일하게 단일어가 아닌 합성어라는 사실이다. 『훈민정음(해례본)』 편찬자의 언어에는 단일어 중 去去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 2음절 명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는 上去의 경우도 동일하다. 상성으로 시작하는 ‘너시, 저비, 굽병’은 上平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합자해〉의 ‘孔子 | 魯人:사름’에 보이는 ‘사름’ 역시 上平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훈민정음(해례본)』 편찬자는 거성이나 상성으로 시작하는 2음절 명사의 제2음절을 평성으로 실현시키는 게 일반적인 성향이었다고 하겠다.

문제는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상황은 거성이나 상성으로 시작하는 2음절 명사가 去去, 上去로 실현될 수도 있고 去平, 上平으로도 실현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세국어 전반의 양상과 비교할 때 『훈민정음(해례본)』의 편찬자에게는 해당 단어들이 단독으로 발화될 때 去平和 上平으로만 실현되었음을 알려준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훈민정음(해례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21)은 중세국어 성조의 특징인 율동규칙이 적용된 예라고 하기 힘든 예들인데<sup>40)</sup> 거성이나 상성으로 시작하는 2음절 명사가 『훈민정음(해례본)』과 동일하게 去平和 上平으로 실현되어 있다.

- (21) ㅼ암(去平) 여스 <월곡25b>, ㅼ암(去平) 오느다 <월석10:24a>, ㅼ암(去平) ㄱ토  
되 <능엄8:87b>, 저비(上平) 넷 깃 칭각(去平)호미 <금삼2:6a>, 저비(上平) ㄱ

39) 김성규(1988) 및 김성규(1999) 참조.

40) ‘율동규칙’에 대해서는 IV장 3절의 (24), (25) 참조.

호야<두시10:1b>, 龍도 무뤼(去平) 오게 호며<월석7:27b>, 무뤼(去平) 득외오  
 <법화7:91a-b>, 반되(去平) 須彌를 스름 곤호니<원각하2-1:52a>, 바믹 반되  
 (去平) ㄴ느니<두시17:38b>, 굽병이를(上平去去)<구급방하6a><sup>41)</sup>

(21)이 『훈민정음(해례본)』의 去平, 上平 실현과 동일한 성조 유형을 가지는 자료들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22)는 거성으로 시작하는 2음절 명사가 去去로 실현된 예들이다.

- (22) 무뤼(去去) 득외야<능엄8:99a-b>, 번게와 무뤼(去去) 득외요몬<능엄8:100a>, 무뤼(去去) ㄴ리오며<법화7:91a>, 반되로다(去去??)<두시8:12b>

(21)과 (22)의 차이는 언어 내적인 규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문헌에 따라 해당 어휘의 출현이 확연하게 나뉘지도 않으며, 동일한 문헌에 서도 두 가지 유형의 성조 실현형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결국 각종 문헌의 편찬자들의 언어 차이로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훈민정음(해례본)』에 실현된 언어를 규범적이라고 보는 관점이 성립할 수 있다면, 去平, 上平의 성조는 규범적인 실현형이고 去去, 上去는 비규범적인 실현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헌에 따라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이 혼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 화자가 두 가지 유형의 성조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과 하나의 문헌 편찬에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형을 가진 화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sup>42)</sup>

41) <용자례>에는 굽병(RL)이 제시되어 있다.

42) 성조의 변이형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운 변화형 또는 쌍형어들의 출현에 대해서도 각각의 문헌을 언해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언어 차이로 접근하는 입체적인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

#### IV. 『訓民正音』의 聲點에 대한 음운론적 해석

##### 1. 장단설과 고저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한자음과 고유어의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평성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거성에는 왼쪽에 점 하나를, 상성에는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당시의 한국어에서 말의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였고, 한국한자음의 모태가 되는 漢音 자체에 성조가 있었으며, 그러한 성조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조까지 기록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자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7세기를 거치면서 중앙어에서는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잃었고,<sup>43)</sup> 원래는 높낮이에 잉여적으로 부가되어 있던 음장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sup>44)</sup>

43) 중세국어 성조의 소멸 시기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갈린다. 그 중 하나는 16세기에 성조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17세기에 들어가서야 성조가 소멸되었다고 추정하는 견해이다. 이기문(1960:61)에서는 『소학언해』의 성점 표기가 15세기와 차이가 나는 것을 토대로 16세기 후반에 성조가 소멸된 것으로 보았으며, 이기문(1972/1977)에서는 그 시기를 16세기 중엽으로 앞당겨 보았다. 김완진(1963) 및 김완진(1977)에서는 16세기 전반에 성조체계의 붕괴가 일어나서 16세기 후반에 소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정연찬(1974)에서는 성조 소멸 시기를 17세기 말로 보았으며, 김성규(1994:143)에서는 16세기 말까지 성조의 기저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들 견해에서 16세기 말이 중요한 이유는 16세기 말의 문헌까지만 성점 표기가 온전하게 되어 있었고 17세기의 문헌부터는 성점 표기가 문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점이 표기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곧 성조의 소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6세기 말까지 성조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는 16세기의 성조를 음고 악센트 체계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유필재(1997:229)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음고 악센트론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성조는 하나의 어절 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가 중요한데, 이 자리의 성조는 16세기 말까지 변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조 소멸의 시기를 17세기로 늦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음고 악센트 체계에 대해서는 IV장 3절 참조.

44) 이기문(1972/1977:153) 참조.

높낮이의 변별력이 상실된 시대에는 15세기의 평성과 상성 그리고 거성이 높낮이를 표기하는 기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1908:17-18)은 상성, 거성, 평성의 차이를 말의 길이의 차이로 인식하였다(最長者는 二點, 稍長者는 一點 平常者は 無點으로 表함이니). 권덕규(1923)에서는 거성은 분명하게 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성과 상성만 있는 것이고, 평성은 보통소리이고 상성은 보통소리보다 길다고 하여 성점이 장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sup>45)</sup> 홍기문(1946, 1947)에서는 훈민정음의 ‘노푼, ㄴ가ㄹ’ 등과 현대 중부 방언을 맞추어 보려 했으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기문(2006:54)에서 지적하였듯이 단어 단위로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중부 출신의 학자들로서는 15세기의 서울말에서 높낮이가 변별적인 기능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sup>46)</sup> 한편 최현배(1937, 1945)에서는 거성, 상성, 평성을 ‘가장 높고 짧은 소리, 높이나 길이가 중간인 소리, 가장 낮고 긴 소리’로 보면서 고저와 장단을 결부시키려고 하였다.<sup>47)</sup>

15세기 문헌의 성점이 고저를 나타낸 것으로 본 최초의 학자는 고노(河野

45) 제14과 음의 長短: 我語에는 반함이 ㄱ ㄴ ㅁ으로 된것이라하여 반듯이 入聲이 되지아니하며 되지아니할뿐아니라 거의入聲이없으니 그러면 上去平三聲만 分別한 것인데 普通語音에 去聲을 分明히 發하기어려운즉 實際에는 平上二聲만 行하는 것이라 이平上二聲을 다시議論하면 正音에 平聲은 第一낮은소리라 하였으나 實狀은 普通소리를 말함이요 上聲은 普通소리보다 깊소리를 말함이라 그러면 四聲을 分別한단것이 長短二種을 分別한것에 지나지아니하며 日用語音에도 그大要만 分別하는 것이 가장簡要한方式이라. (중략) 그分別하는標를 正音이나 新訂國文에 와같이 左右에點 찍는 것은 잘된標라하지못할지요 반듯이 母音에 標하여야할지며 標하는方式은 아즉그만두고 이알에 長短音의例를 적노니

|      |       |
|------|-------|
| 길음   | 짜름    |
| 별(星) | 별(陽)  |
| 밤(栗) | 바람(風) |

46) 주시경은 황해도 출신이고 권덕규는 경기도 출신이며 홍기문은 충청북도 출신이다.

47) 김영만(1986:7)에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해 서울, 경남, 경북을 절충시킨 의견이며 주시경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六郎)(1945, 1951)였다. 고노(河野六郎)(1945)에서는 『훈민정음(해례본)』 〈예의〉의 기술 “左加一點則去聲 二則上聲 無則平聲 入聲加點同而促急”과 신숙주의 『동국정운』 〈序〉에 나오는 “語音則四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이라는 기술을 토대로 당시의 성조는 기본적으로 고저 2종이 있었는데, 평성은 저조이고 거성은 고조이며 상성은 고저의 복합성조라고 보았다. 고노(河野六郎)(1951)에서는 현재 서울 방언에 성조가 없지만 당시에는 명백하게 존재하였으며 〈합자해〉의 “활爲弓而其聲平 : 돌爲石而其聲上 · 갈爲刀而其聲去”라는 성조 기술을 통해 볼 때 平上去 세 개의 성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상성에 대해서만 “저조와 고조 두 단계에 모두 걸치는 상승조”로 표현을 약간 바꾸었을 뿐 기본적으로 고노(河野六郎)(1945)와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세국어 성조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논의는 경상도 김해 방언과 15세기의 방점을 비교한 허웅(1955)이라고 하겠다. 허웅(1955)에서는 중세국어를 성조언어였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평성은 저조이고 거성은 고조이며 상성은 상승조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 2. 운소 체계의 유형과 성조소

중세국어의 성조가 음의 높낮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아직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었다고 보기 힘든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당시의 한국어의 운소 체계를 어떤 유형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중국어로 대표되는 ‘진정한 성조(true tone) 언어’와 일본어로 대표되는 ‘음고 악센트(pitch-accent) 언어’ 가운데 어느 쪽이 중세국어의 성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는 완전히 결론이 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훈민정음』 자체에는 중국어의 성조를 기술하는 방법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 한국어의 운소 체계 유형이 중국어의 성조 체계와 달랐어도 ‘훈민정음’ 창제자는 중국어를 설명하는 四聲 체계에 기대어 한국어의 운소를 설명하고 기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조소의 문제인데, 『훈민정음』에서 평성, 거성과 별도의 단

위로 제시되어 있는 상성을 하나의 단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성과 거성의 결합인 두 개의 단위로 나누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성조 유형의 문제는 뒤의 IV장 3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앞의 (6)과 (7)에서 보인 〈예의〉의 기술을 통해 평성은 낮은 소리(저조)이고 거성은 높은 소리(고조)이며 상성은 처음은 낮고 나중은 높은 소리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상성의 경우 소리가 점점 높아가는 굴곡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훈민정음』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허웅(1955), 김차균(1985)처럼 중세국어의 높낮이 요소는 평성, 상성, 거성의 세 단위가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노(河野六郎 1945, 1951), 이기문(1960), 정연찬(1960) 등에서 논의되었듯이, (23)처럼 음절이 축약되면서 평성과 거성이 합쳐질 때 상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보면 상성은 음운론적으로 저조와 고조의 두 성조소(聲調素)가 대립하는 평판조(平板調)의 운소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3) 부터(佛:平平)+ㅣ(주격조사:去) → 부테(平上)  
 득리(橋:平平)+ㅣ(주격조사:去) → 득리(平上)

김완진(1973/1977)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적극 받아들여서 표면의 ‘평성, 거성, 상성’은 각각 ‘L, H, R’로 표기하였지만, 기저의 성조에서는 ‘R’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상성을 ‘lh(평성과 거성의 결합)’로 처리하였다. 한편 김주원(1995)에서는 중세국어에서 음운론적으로 두 단계의 높이가 인지되었다는 점은 받아들이되, 일반적으로 ‘가장’으로 번역되는 (6)의 ‘못노퍽, 못노가쁜’의 ‘못’을 ‘바로’로 해석하여 당시에 ‘바로 높은 소리(거성), ‘바로 낮은 소리(평성), 앞 낮고 뒤 높은 소리(상성)’가 있었다고 보았다.

### 3. 성조론과 악센트론

『훈민정음』에 제시되어 있고 중세국어 문헌의 표기에 적극적으로 적용되



어 있는 성점이 높낮이를 표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에는 중세국어와 중국어의 성조 체계가 각각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중세국어 성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당시의 운소를 악센트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견해가 우세하게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그런데 중세국어의 운소는 이처럼 악센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성조 언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한다.<sup>48)</sup>

중세국어와 중국어와 같은 성조 언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세운 논의로는 정연찬(1969)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정연찬(1969, 1975)은 파이크(Pike 1948)의 운소 분류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법형태소가 거성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중세국어를 ‘단어 음고 체계(word pitch system)’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후 하야타(早田輝洋 1974, 1999), 가도와키(門脇誠一 1976, 1985), 램지(Ramsey 1978, 1979, 1991, 2000, 2005), 간노(菅野裕臣 1979, 1995), 후쿠이(福井玲 1985, 2003), 이토(伊藤智ゆき 2000, 2002, 2005), 조의성(趙義成 2002), 스기야마(杉山豊 2008), 츠지노(辻野裕紀 2008) 등에서도 중세국어를 음고 악센트의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강신항(2006:326-328)에서는 성조 언어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중국어는 단음절 언어로 성조에 의한 대립쌍이 존재하지만 15세기 중세국어의 문헌 자료에서는 그러한 ‘평·상·거’의 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을 들어 중세국어 가 순수한 성조 언어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음고 악센트론에 의하면 한 어절 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가 결정되면 그 어절의 나머지 부분의 악센트는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하토리(服部四郎)(1968)에서는 첫 번째 거성의 위치에 상승 악센트 핵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를 따르는 음고 악센트론에 의하면 하나의 어절 안에서 악센트 핵의 위치가 정해지면 나머지 높낮이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악센트 실현의 저변에는 (24)와 같은 ‘울동규칙’이 자리를 잡고 있다.<sup>49)</sup> 15세기의 경우 하나의 어절 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가 정해져

48) 이하 중세국어의 성조론과 악센트론에 대한 내용은 김성규(2009-)의 제2장 “중세국어를 보는 관점 - 성조론과 악센트론”의 기술에 기대고 있다.

있으면 그 어절의 나머지 부분의 성조는 율동규칙을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15세기의 율동규칙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 ‘去聲不連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sup>50)</sup>

- (24) 去○→去去 去○○→去平去 去○○○→去去平去 去○○○○→去平去平去  
 平去○→平去去 平去○○→平去平去 平去○○○→平去去平去  
 平平去○→平平去去 平平去○○→平平去平去
- (25) 쓸(去)+으시니→쭈르시니(去○○○)→쭈르시니(去去平去:용가81)  
 구름(去○)+이라→구루미라(去○○○)→구루미라(去去平去:월석서18)  
 없(上)+가나→업가나(上○○)→업가나(上平去:석보9.36)  
 쉼(上)+이러시나→세히러시니(上○○○○)→세히러시니(上平去平去:석보6.11)

(25)의 ‘쓸’과 ‘구름’은 거성으로 시작하고 ‘쭈르시니, 구루미라’는 모두 4음절어이므로 ‘去○○○→去去平去’의 틀을 따라 악센트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없, 쉼’은 상성이고,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결합이므로 상성의 뒷부분에 거성이 들어 있어서, ‘업가나’와 ‘세히러시니’는 각각 거성으로 시작하는 3음절어와 5음절어의 율동규칙(去○○→去平去, 去○○○○→去平去平去)이 적용되어 해당 어절의 악센트가 上平去, 上平去平去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어절 안에서 첫 번째 거성의 위치가 결정되면 나머지 음절의 성조가 결정되는 율동규칙의 존재로 15세기의 한국어를 ‘음고 악센트 체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5세기의 한국어 운소를 성조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중국어의 성조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문(1972/1977:150)에서는 ‘손(客:

49) 김완진(1973/1977)에서는 율동규칙을 정밀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김완진(1973/1977:77)의 ‘각주 1’에서는 ‘율동’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율동’보다는 ‘억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으로 느껴지나, ‘억양’이라는 말이 intonation을 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율동(=rhythm)’이라는 말을 택한다.”

50) 여기서 ‘去○○→去平去’는 거성으로 시작하는 3음절어는 ‘去平去’로 실현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상성은 평성과 거성의 연속적 결합이므로 상성 자체는 거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동규칙’에서 상성의 뒷부분은 거성으로서 다른 거성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平)’과 ‘손(手:去)’, ‘서리(霜:平去)’와 ‘서리(間:去平)’, ‘가지(枝:去平)’와 ‘가지(種:平去)’ 및 ‘가지(輻:去去)’, 그리고 ‘브라(割:去平)’와 ‘브라(棄:平去)’ 등에서 보듯이 ‘音調’만으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이 존재하므로 중세국어의 운소는 성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1)</sup> 그러나 1음절 동사 어간에서는 이러한 예가 거의 없고, 동사 어간의 ‘음조’는 그 어간의 말음과 뒤에 오는 요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중국어와 같은 진정한 성조 언어였음을 의심케 한다고 보았다. 이상억(1978)에서는 중세국어는 도출 과정의 어느 지점까지는 음고 악센트 체계와 같은 면이 보이지만 그 지점 이후에는 성조 언어처럼 행동한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러한 견해는 언어를 성조 언어와 음고 악센트 언어로 나눌 수 없고 규칙 배열에서 어떤 단계에 성조 규칙이 실현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맥콜리(McCawley 1970:529)의 관점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이상억(1978:36-37)에서는 정연찬(1969)의 ‘단어 음고 체계’에 대해 어휘의 기저 성조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기준이 문법 형태소들에 적용되었다는 지적도 이루어졌다. 유필재(2001:151-152)에서는 음고 악센트 언어에서는 합성어가 이루어질 때 그 구성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악센트형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15세기 한국어에서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성조형을 고수한다는 사실과 ‘울동규칙’이 성조 언어에서 발견되는 ‘성조 연성(tone sandhi)’과<sup>52)</sup> 유사하다는 점 등은 15세기의 한국어를 음고 악센트<sup>53)</sup> 언어라고 주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51) (21)과 (22)의 ‘무릎’의 성조의 예에서 보듯이 15세기에 동일한 단어가 去平으로도 실현될 수도 있었고 去去로도 실현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지(枝:거평)’와 ‘가지(輻:거거)’의 성조 차이는 기저형의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첫 음절에 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2) 15세기 한국어의 합성어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자신의 성조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조의 변동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다. 김완진(1973/1977:67)에서는 중국어에서 上聲調 뒤의 요소가 虛辭이면 上去가 되고 實辭이면 去上이 되는 것과 같은 성조 연성과 유사한 현상이 15세기 한국어의 합성어 성조(똥내(上上)→똥내(上去), 낫낫(上上)→낫낫(平上))에서도 발견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유필재(2001)에서는 울동규칙이 성조 연성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53) 유필재(2001)에서는 pitch의 번역으로 ‘음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억(1990)을 따라 ‘음고’로 번역하였다. tone을 ‘음조’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기

성조 언어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김완진(1999:149)에서는 중세국어가 악센트 체계의 언어라는 주장이 중세 국어의 성조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핀 후 근거를 제시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다.<sup>54)</sup> 합성어 ‘아바님’, ‘어마님’과 같은 예에 보이는 ‘平去上, 去平上’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면 중세국어를 음고 악센트 언어라고 쉽게 결론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악센트어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완전한 전환을 보이지 않은 언어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A 아니면 B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중간적인 제삼의 유형을 배제할 수 없음을 피력한 견해이다(김완진 1973/1977:129-130 참조).

중세국어의 자료를 살펴보면 음고 악센트 체계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동규칙에 의해 예측하기 힘든 문법형태소가 의외로 많이 발견된다. 김성규(2009ㄴ:8-17)에는 이처럼 율동규칙을 따르지 않는 문법형태소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김성규(2011)에서는 해당 문법 형태소 가운데 어미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형태소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단순한 예외로 치부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김성규 2009ㄴ:62 참조). 이러한 관찰을 통해 김성규(2009ㄴ)에서는 15세기의 언어는 ‘형태소 성조 언어’였으며 16세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특수성이 소멸하여 음고 악센트 언어로 바뀐다고 보았다.<sup>55)</sup> 이처럼 15세기와 16세기의 운소 체계 유형을 달리 봐야 하는 이유는 15세기에는 독자적인 성조를 가지고 있던 문법형태소들이 16세기에 들어서면 일반적인 문법형태소들과 동일하게 거성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

때문이다.

54) 유필재(2001:151)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며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국내 학자들과 달리 대부분의 일본과 구미 학자들은 중세국어를 현재의 일본어와 같은 음조 악센트 언어로 간주한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음조 악센트 언어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한 논저는 드문 것 같다.”

55) 김성규(1994)에서는 중세국어의 순수한 성조언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성규(2009ㄴ)에서 제시하였듯이 중세국어는 운소 면에서 하나의 시기로 묶일 수 없다.

또한 김성규(2009:7, 1)에서는 중세국어 운소 연구의 초기에 고립어와 교착어라는 유형론적 차이를 무시한 채, 성조 체계나 악센트 체계를 비교했던 파이크(Pike, 1948)의 작업은 비교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동일한 고립어를 대상으로 운소 체계의 비교가 이루어지거나 동일한 교착어를 대상으로 운소 체계의 비교가 이루어졌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규(2009:25)에서는 이러한 견해와 함께 한국어는 다음절이 하나의 형태소를 이룰 수 있고,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음절이 형태소를 이룰 수 있는데, 음절수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형태소를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sup>56)</sup>

## V. 마무리

중세국어는 단어의 높낮이가 변별력을 가지고 있던 성조 언어였다. 그러한 사실을 파악한 ‘훈민정음’ 창제자는 당시의 성조를 일상 문자 생활에서 음절마다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조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방향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훈민정음』에서 설명하는 四聲에 대한 음미와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중세국어의 음운현상으로서의 聲調論이다. 이 두 가지 방향 중 이번에 논의한 내용은 첫 번째의 논제가 주를 이루었다. 주제 자체를 ‘중세국어의 성조’가 아니라 ‘훈민정음의 성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논의에서는 성조론과 관련해서는 聲點에 대한 음운론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성조의 변동 현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지 않았다.

‘訓民正音’이라는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면서 음절을 초성과 중성 그리고 종성으로 3분하고 초성과 종성이 동일한 子音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당

56) 김차균(1988:101, 1991:147, 2006)에서는 성조 언어의 유형론적인 분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오든(Odden, 1996), 구센호벤(Gussenhoven, 1999), 키세버스(Kisseberth, 2000)에서도 성조 언어와 악센트 언어를 나누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한국 언어학의 크나큰 수확이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덧붙여서, 성조를 관찰하여 그것을 음절 단위로 표기하였다는 사실도 언어학적인 면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는 점도 부각되어야 한다. 한국어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한국어의 성조와 중국어의 성조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인식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의 창제자는 聲點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성조 표기 방식을 고안하였으면서도, 그러한 표기 방식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대의 연구자들도 지금까지 『훈민정음』의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거성은 ‘글자(字)’의 왼쪽에 점을 하나 찍으며, 상성은 ‘글자(字)’ 왼쪽에 점 두 개를 찍는 방식”의 기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87),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강신항(2006), 「『훈민정음』 〈해례〉의 설명에 나타난 몇 가지 문제」, 임용기·홍윤표 편(2006).
- 권덕규(1923), 『朝鮮語文經緯』, 광문사.
- 권인한(2005),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 권재선(1987), 『국어학 발전사』, 우골탑.
- 김성규(1988), 「성조의 재구방법」, 『국어국문학』 100, 국어국문학회.
-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성규(1997), 「성조의 변화」, 『국어사연구』, 국어사연구회, 태학사.
- 김성규(1999), 「중세국어 합성어의 성조」, 『언어의 역사』, 성백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태학사.
- 김성규(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 김성규(2009ㄱ), 「중세국어 음운론의 쟁점」,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 김성규(2009ㄴ),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 김성규(2011),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완진(1963), 「형태부 성조의 동요에 대하여」, 『서강대논문집』 1.
- 김완진(1971), 「알과 성조와 자음부 성조에 대한 일고찰」,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 김완진(1973/1977), 『중세국어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 김완진(1999), 「나의 책 나의 학문」, 『새국어생활』 9-2, 국립국어연구원.
- 김주원(1995), 「중세 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밋노픈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언어』 20-2, 한국언어학회.
- 김차균(1985), 「한국어 상성 성조의 본질」, 『천시권박사화갑기념국어학논총』. 형설출판사.
- 김차균(1988), 「성조 이론의 비판적 성찰」, 『애산학보』 6, 애산학회.
- 김차균(1991), 「일본 언어학계의 한국어 성조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차균(2006), 「우리말 성조사 오백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임용기·홍

윤표 편(2006).

안병희(1986),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원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안병희(1990), 「훈민정음언해의 두어 문제」, 『벽사 이우성선생 정년퇴임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여강출판사.

안병희(1997), 「훈민정음 해례본과 그 복제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안병희(2002), 「훈민정음(해례본) 삼제」, 『진단학보』 93, 진단학회.

유필재(1997), 「화엄사관 부모은중경언해에 대하여」, 『진단학보』 84, 진단학회.

유필재(2001), 「중세국어 성조 연구사」,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이기문(1960), 「소학언해에 대하여」, 『한글』 170, 한글학회.

이기문(1972/1977),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이기문(2006), 「국어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임용기·홍윤표 편(2006).

이상억(Lee, Sang Oak)(1978), Middle Korean Tonology, Ph.D., Urbana, Illinois.

이상억(1990), 「성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임용기·홍윤표 편(2006),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태학사.

정연찬(1960), 「십오세기 국어의 Tone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8, 서울대학교 대학원국어연구회.

정연찬(1969), 「국어성조의 기능부담량에 대하여」, 『여당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정연찬(1976: 2-18)에 재수록].

정연찬(1970), 「세종대의 사성 표기법」, 『국어국문학』 49·50, 국어국문학회.

정연찬(1974), 「소학언해 교정청본의 방점표기」, 『진단학보』 37, 진단학회.

정연찬(1975), 「성조형과 그 변화의 의미」, 『동양학』 5[정연찬(1976:19-30)에 재수록].

정연찬(1976), 『국어성조에 관한 연구』, 일조각.

주시경(1908), 『국어문진음학』, 박문서관.

차익중(2014),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현배(1937), 『한글갈』, 정음사.

최현배(1945), 『우리말본』, 정음사.

崔義秀·李義活(1990), 『漢語音韻學通論』, 중문출판사.

허웅(1955), 「방점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 서울신문사.
-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서울신문사.
- 가도와키(門脇誠一)(1976), 「中期朝鮮語における聲調交替について」, 『朝鮮學報』 79, 朝鮮學會.
- 가도와키(門脇誠一)(1985), 「中期朝鮮語の聲調の特徴—特に15世紀末の文獻を中心—」, 『朝鮮學報』 116, 朝鮮學會.
- 간노(菅野裕臣)(1979), 「中期朝鮮語の聲調のいくつかの問題について」, 『九州史學會 朝鮮學部會發表要旨』.
- 간노(菅野裕臣)(1995), 「중세한국어 ㄷ 변격용언 3제: 악센트론의 관점에서」, Proceedings: The 17th Conference of AKSE, Prague.
- 고노(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東都書籍[河野六郎著作集 1(1979, 平凡社)에 재수록].
- 고노(河野六郎)(1951), 「諺文古文獻の聲點に就いて」, 『朝鮮學報』 1[河野六郎著作集1(1979, 平凡社)에 재수록].
- 스기야마(杉山豊)(2008), 「初刊本 《分類杜工部詩諺解》의 傍點表記に反映されたいくつかの言語現象」, 『第222回朝鮮語研究會發表要旨』.
- 이토(伊藤智ゆき)(2000), 「中期朝鮮語漢字音アクセント資料」, 『韓國語アクセント論叢』, ICHL Linguistic Studies Vol.3, 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附屬文化交流研究施設 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 이토(伊藤智ゆき)(2002), 「《六祖法寶壇經諺解》句音調」,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 이토(Ito Chiyuki)(2005), On the Functions of the Sino-Korean Accents, in Shigeki Kaji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ross-Linguistic Studies of Tonal Phenomena-Tonogenesis, Historical Development, Tone-Syntax Interface, and Descriptive Studies*, Institute for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조익성(趙義成)(2002), 「中期朝鮮語アクセント小攷」, 『朝鮮語研究』 1, 朝鮮語研究會.
- 츠지노(辻野裕紀)(2008), 「韓國語大邱方言における名詞のアクセントについて」, 『第222回朝鮮語研究會發表要旨』.
- 하야타(早田輝洋)(1974), 「朝鮮語のアクセント:共時的及び通時的的研究」, 『言語研

- 究』 66.
- 하야타(早田輝洋)(1999), 『音調のタイポロジー』, 大修館書店.
- 하토리(服部四郎)(1968), 「朝鮮語의アクセント·モーラ·音節」, 『ことばの宇宙』 3-5, テック言語教育事業グループ.
- 후쿠이(福井玲)(1985), 「中期朝鮮語의アクセントについて」, 『東京大學言語學論集』 85, 東京大學文學部言語學研究室.
- 후쿠이(福井玲)(2003), 「朝鮮語音韻史의諸問題」, 『音聲研究』 7-1, 日本音聲學會.
- 구센호텐(Carlos Gussenhoven)(1999), Tone system in Dutch Limburgian dialects, in Shigeki Kaji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ross- Linguistic Studies of Tonal Phenomena-Tonogenesis, Typology, and Related Topics*, Institute for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램지(S. Robert Ramsey)(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답출판사.
- 램지(S. Robert Ramsey)(1979), 「韓國語アクセント概説」, 『均社論叢』 9, 京都大學文學部中文研究室.
- 램지(S. Robert Ramsey)(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in William G. Boltz and Michael C. Shapiro (eds.),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Philadelphia.
- 램지(S. Robert Ramsey)(2000), Tonogenesis in Korean, in Shigeki Kaji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ross-Linguistic Studies of Tonal Phenomena-Accent, Japanese Accentology, and Other Topics*, Institute for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램지(S. Robert Ramsey)(2005), Sino-Korean Accent and Ito Chiyuki's Research, in Shigeki Kaji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ross- Linguistic Studies of Tonal Phenomena-Tonogenesis, Historical Development, Tone-Syntax Interface, and Descriptive Studies*, Institute for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맥콜리(James D. McCawley)(1970), Some tonal systems that come close to

- being pitch accent systems but don't quite make it, *Proceedings of the Six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526-532.
- 오든(David Odden)(1996), Tone: African Languages, in Glodsmith (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Blackwell Publishing, 444-475.
- 키세버스(Charles W. Kisseberth)(2000), Bantu Perspectives on Yukihiro Nakai's The History of the Kyoto Accent, in Shigeki Kaji (ed.),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Cross-Linguistic Studies of Tonal Phenomena-Accent, Japanese Accentology, and Other Topics*, Institute for Study of Language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파이크(Kenneth L. Pike)(1948), *Tone Language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